

예배 동시통역사의 업무 적응과 직업 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홍 설 영
(한국통번역사협회)

1. 들어가며

한국교회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이문화 간의 접촉은 기독교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였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국내에 유입되어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소개되면서 이들 선교사와 한국인들 간의 접촉이 교회에서 발생한 것을 필두로, 이후 한국에서 기독교가 공고히 뿌리를 내림에 따라 한국 교회는 다양한 해외 선교활동을 펼쳐왔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기독교의 기치에 따라 교회의 해외선교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문화 당사자들 간의 접촉이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을 해왔다. 한국의 사역자들이 선교사의 자격으로 해외로 진출하거나 국내 신도로 구성된 단기 해외선교팀을 파송하고 해외의 교회들과 결연하는 등,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해외선교는 한국교회의 주축 활동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내에 많은 외국인 방문객과 체류

자들이 유입되어, 이문화 간의 접촉은 한국교회에서 실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접촉의 지점에서 언어 장벽을 뛰어넘고 소통을 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필요에 따라 교회 통역(church interpreting)의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교회에서 예배는 신도들이 회합하고 소통하는 핵심 장이며, 교회 통역이 요구되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되고 정례화된 입지를 점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예배 상황에서 통역의 필요가 발생하는 상황을 통역의 언어방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우선 외국인 사역자가 설교를 위해 방문하거나 외국어 예배에 한국인 신도가 참석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통역이 요구된다. 한편 한국어 예배에 외국인 혹은 외국어가 제1언어인 내외국인이 참석할 시에는 교회에 따라 이들을 위한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듯 교회 통역은 대개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배에서 핵심을 점하는 것이 설교인 관계로 교회 통역과 관련된 현존 연구는 대부분 설교 통역(sermon interpreting)을 주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설교 통역의 오랜 역사에 비하자면 관련 논문의 편수가 극히 적으며, 교회 내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인력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한국교회에서 외국인 신자에게 제공되는 예배 동시통역 서비스가 증가일로에 있는 상황에서(신혜인 2013), 이들 통역사의 경험을 살펴볼 가치는 충분하다. 종교라는 맥락, 설교 텍스트의 특성, 영성 전달이라는 통역사의 역할과 책임 등에 따라 예배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사는 특수한 업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설교만을 통역하는 것과 예배의 전 과정을 통역하는 것 간에는 여러 다른 업무의 요소와 역학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개인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 탐색을 가능케 하는 내러티브 탐구를 연구 방법으로 삼아, 한국 교회에서 예배 동시통역을 담당하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업무 적응과 직업 정체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 동시통역사의 역할과 업무의 실체는 무엇인가?

둘째, 예배 동시통역사가 인식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교회 및 설교 통역

종교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통역은 ‘종교 통역(religious interpreting)’, ‘신앙관련 통역(faith-related interpreting)’으로 명명되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교회 통역(church interpreting)’, ‘설교 통역(sermon interpreting)’으로 일컬어진다. 연구 문헌에서 ‘설교 통역사’의 명칭은 설교를 통역하는 통역사라는 의미와 교회 혹은 예배 통역사를 아우르는 일반 명사의 개념으로도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며, 후자를 칭하는 경우일지라도 설교 통역사라는 명칭이 보다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 관련 통역에 대한 통번역학계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10년대의 일로, 대다수 논문의 주제는 설교 통역에 집중되어 있다. 국외의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설교 통역사의 감정노동(Tekgül 2020), 자발적인 봉사로서의 설교 통역(Hokkanen 2012-2017), 통역사의 역할과 통역 관행을 중심으로 한 설교 통역사의 관여(Balci 2016), 설교 통역에서의 설교학 적용의 중요성(Downie 2014), 설교통역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역의 어려움 도출(Musyoka & Karanja 2014), 비숙련 설교 통역사들의 통역 결과물 평가(Karlik 2010)를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설교 통역과 관련 국내의 선행연구는 설교 통번역의 효과적인 학습법(김일석 2013), 설교 통역의 현황 및 특징(신혜인 2013, 2015), 설교 순차통역의 소통전략(Odhiambo 외 2013), 설교 통역에서의 전문 인력과 일반 인력 간의 협력(신혜인 2017), 설교 통역의 충실성 개념(신혜인 2019)을 다룬다.

통역에 대한 거시적인 유형 분류의 차원에서 설교 통역은 흔히 커뮤니티 통역의 한 갈래로 분류되지만, 커뮤니티 통역과 회의통역의 특성을 모두 지닌 제3의 통역 유형이라는 인식 또한 우세하다. 통역이 행해지는 곳이 교회라는 점과 통역사의 역할을 두고 보면 설교 통역은 커뮤니티 통역의 특성을 지니며, 양자 간의 대화보다는 일대 다의 소통 상황을 상정한다는 의미에서는 회의통역과 흡사하다(Tekgül 2020). 커뮤니티 통역에는 공공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실제로 교회 내의 설교 통역이 많은 경우 봉사와 신도에 대한 무보수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전문 통역 인력과 일반인 간의 협력이 전제될 뿐 아니라 심지어 일반인에 의한 통역이 우세한 사례까지 있으므로, 설교 통역이 커뮤니티 통역의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또한 순차통역이 빈번한 설교 통역에서는 짧은 말차례로 통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커뮤니티 통역과 공통적이다(신혜인 2015). 한편 설교 통역과 회의통역의 공통점으로는 연사의 높은 지위, 연설문과 흡사한 설교문의 특성, 대형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설교 동시통역 환경과 국제회의 동시통역 환경의 유사점, 비영어권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통역 수요를 들 수 있다(신혜인 2015).

이렇듯 통역 유형 분류의 측면에서 지닌 절충적인 성격 외에도, 설교 통역을 보다 근본적으로 특징짓는 것은 바로 설교가 ‘신앙’과 ‘영성’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는 예배의 식순에서 대개 정중앙에 배치되고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부분으로, 신도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설교를 듣는 청중은 설교를 통해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자신의 신앙 성장을 원하는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감화, 변화, 성숙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김홍진 2019). 그러므로 설교자의 역할은 성경과 청중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청중의 삶의 변화와 신앙적인 성숙을 이끄는 것이다(장경진 2013: 214-215). 이를 위해 설교자는 성경과 사람, 세상에 대한 통찰력으로서의 실력,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적 도구로서의 언력, 예수를 닮은 삶으로서의 영성의 자질을 지녀야 한다(류응렬 2010: 129-130).

이처럼 설교자의 영성을 통역에 담아야 하는 것이 설교 통역사의 역할이므로, 설교 통역사는 우선 설교의 근간이 되는 성경의 내용에 충실하게 통역해야 한다. 관련하여 신혜인(2019)은 성경 및 설교 내용 모두에 대한 충실성을 지녀야 함을 설교 통역사의 ‘이중의 충실성(dual loyalty)’으로 표현하였다. 영성의 전달이라는 설교 통역사의 역할로 인해 설교 통역사에게는 언어적인 의미 전달과 통역의 정확성 외에도 추가적인 기대와 정체성이 부여된다. 우선 설교 통역사는 설교자의 분신으로 여겨지는데, 설교 통역이 하나의 공동 설교(co-preaching)(Karlik 2020)이자 합동 퍼포먼스(co-performance)(Downie 2014)로 규정되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설교 통역사는 통역 중에 감정의 몰입, 반영, 증폭을 경험하게 되는데(Tekgul 2020; Vigouroux 2010), 설교의 목적이 영적인

감화와 행동변화이므로 그 어느 통역 유형보다도 설교 통역사는 설교자의 감정에 이입하여 설득력과 호소력 있는 통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설교 통역사에게는 영성, 소명 의식, 이타심, 겸손 등의 인성적인 자질이 강조된다(신혜인 2013; Hokkanen 2012). 이렇듯 정서, 전달력, 인성의 전 측면에서 설교 통역사는 설교자와 상당 부분 동일시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교회 내에서 설교 통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외국인 목사나 선교사 등의 사역자가 초청되어 말씀을 전하는 경우 순차통역을 통해 한국인 회중에게 메시지가 전달된다. 한편 동시통역의 경우 예배에 참석한 외국인 회중을 위해 예배 전 과정을 통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통역은 통역의 유형에 따라 통역이 요구되는 맥락과 연사 및 청중의 프로필에서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는 통역사에 대한 교회의 통역사 선정 기준과 통역에 대한 청중의 기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관련하여 한국 교회의 설교통역 환경을 보고한 신혜인(2015: 92)에 따르면, 설교 통역이 순차통역일 경우 신학적인 지식을 갖춘 목사 등의 사역자에게 대개 설교 통역을 맡기는 등 엄격한 선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동시통역이 행해질 경우에는 통역사 선발 기준이 미비하며 평신도들이 통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역 사용자인 청중 역시도 통역의 유형에 따라 통역사에게 갖는 기대가 상이한데,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교 통역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설문 실시한 신혜인(2013)은 순차 통역사에게는 신앙, 소명 의식, 인격이 통역 능력 못지않게 강조되는 반면, 동시 통역사에게는 주제지식, 통역기술, 사전교육 등이 강조되었음을 보고한다.

2.2 내러티브 탐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통계적인 처리로 객관적 이론의 검증을 피하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구성주의에 근간을 둔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그들의 경험과 인식, 태도, 신념에 관심을 둔다. 특정 맥락에서의 인간의 경험을 고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질적 연구이므로 질적 연구에서는 일반화가 가능한 결론의 도출이 아닌 인간 개별의 특수한 경험 고찰이 연구의 목적이 된다.

경험이란 탐구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사회적 맥락에 위치한 개인으로 구성된다는 듀이(Dewey)의 경험론에 철학적인 근간을 두고 질적 연구의 한 갈래인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가 탄생하였다. 내러티브란 “시간과 인과성에 따라 유의미하게 연결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기호의 표상”(Onega and Landa 1996: 3)으로 정의되며, 내러티브 탐구는 “시간을 두고 어느 장소에서 사회적인 교류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협력”을 통해 경험을 조명하는 연구 방법이다(Clandinin and Connelly 2000: 20).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이 이야기, 즉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Andrews 외 2008). 질적 연구에서 내러티브는 사회적 현실을 대변하고 구성하며 형성하는 요소인데, 이는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과정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때문이다(Etherington 2004: 75). 결국 내러티브 탐구가 추구하는 내러티브적인 앎(narrative knowing)이란 수치가 아닌 사람의 언어를 데이터로 삼아 일반과 보편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앎을 추구하는 것이다(Bruner 1991).

내러티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에 있어 내러티브 탐구자는 시간성(temporality), 사회성(sociality), 장소(place)라는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 공간(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을 사고의 틀로 삼아 연구 대상자의 경험을 고찰하게 된다. 시간성이란 과거와 현재, 미래로 구성되는 시간의 연속성을 뜻하며, 사회성은 개인의 조건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조건과 맥락을 의미하며, 장소란 실제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지칭한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자의 역할은 임의적이고 연결성이 떨어지는 내러티브에 유의미한 패턴을 발굴하는 것이며(Reissman 2008: 5), 이를 통해 경험의 조직화를 이루는 것이다.

3. 연구의 실제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예배 통역사의 업무 적응과 직업 정체성을 고찰한다는 연구

의 목적을 충족하는, 교회 환경에서 예배 동시통역 경력을 다년 간 쌓은 통역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이미라(가명)는 서울에 소재한 대한 예수교장로교회 교단 소속 대형교회 신도이자 해당 교회에서 주일 오전 한국어 예배 영어 동시통역을 담당한 연한이 14년이 된 한영 국제회의통역사이다. 이렇듯 오랜 시간 주일 예배의 동시통역을 담당하여 교회 내의 통역 업무와 맥락에 대한 풍부한 내러티브를 제공해주리라 사료되었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대화 형식의 심층 인터뷰에서 중시되는 것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라포(rapport) 형성인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업무 관계로 다년 간 알고 지내어 마음을 연 솔직한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연구자는 평소 미라와의 접촉을 통해 출석 교회의 예배 통역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단순히 설교만을 통역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예배 전 과정의 동시통역에 대한 미라의 경험을 알고 싶었다.

3.2 연구 절차 및 데이터 분석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연구동의서에 상호 간에 서명하여 연구의 목적과 자료 활용 지침,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사전 회의의 논의를 통해 연구 참여자가 예배 동시통역팀에 합류한 이후 ‘업무 적응과 직업 정체성 형성’을 요한 기간과 지점들을 본 연구의 관찰범위로 설정하였다. 내러티브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인터뷰는 총 5시간 동안 실시되었다. 인터뷰는 매회 녹음 및 전사가 되었고, 연구 참여자의 맥락과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교회의 주보, 설교 원고, 통역사에게 제공된 학습자료 등 참여자의 업무자료를 더불어 수집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절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절차

날짜	연구 활동	내용	수집된 자료
2020. 1-2월	연구 준비	연구 계획 및 구상 연구 참여자 섭외 사전회의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 계획서
2020.3.9	이야기하기	인터뷰/현장텍스트 1	인터뷰 녹음파일 녹취록 참여자 업무자료
2020.4.4		인터뷰/현장텍스트 2	인터뷰 녹음파일 녹취록 참여자 업무자료
2021.3.4		인터뷰/현장텍스트 3	서면 보충 인터뷰 질의서/답변서
2021. 11월~ 2021. 3월	다시 이야기하기	데이터 분석/코딩 연구 텍스트 작성	코딩지 연구 텍스트

인터뷰에 담긴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해 질적 데이터 코딩을 실시한 결과, 업무 적응과 직업 정체성을 주제로 ‘업무의 환경과 맥락’, ‘업무 적응’, ‘통역 전략’, ‘역할과 정체성’이라는 총 4개의 핵심주제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4개의 핵심주제에 따라 도출된 하위 구성의미는 29개인데, 데이터 범주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데이터 코딩 결과

핵심주제	구성의미
업무의 환경과 맥락	원격에 위치하고 설계가 상이한 통역부스 통역팀 인원의 변화와 서비스되는 언어수의 변화 통역 준비를 위한 교회의 초창기 학습자료 지원 보수적이며 학구적인, 오랜 역사의 대형 장로교회 설교원고 수령 시점의 편차 대표기도문 원고 수령 여부의 불확실성 전문 통역사와 비숙련 통역사의 공존 극소수의 청중, 청중이 없어도 통역함
업무 적응	예배 전체에 대한 1인 동시통역 예배순서와 통역지침의 숙지 담임목사님들의 화법과 스타일에 적응하기 부목사님들의 설교와 기도에 적응하기

	다양한 기도의 유형들에 적응하기 영상 멘트와 자막의 통역 예배 특유의 표현들에 대한 인터넷 자료의 부족
통역 전략	호소와 감화의 목적이 강한 설교의 특성 의도적으로 ‘요약식’ 통역을 택함 높은 커버리지와 요약물 요하는 구간들의 교차 강조를 위한 반복과 표현의 중복성 간의 줄다리기 녹음과 자기감시를 통한 화법 조절 통역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판단과 정보보충 예배 전체에 흐르는 내용의 유기성과 연결성 파악
역할과 정체성	회의통역사 vs 설교통역사의 정체성 분리 전문가보다는 봉사자로 인식하는 시선 통역팀장으로서의 역할 비전문가 통역사의 역할 대신하기 낮은 가시성과 더딘 인력의 전문화 속도 통역 피드백과 청중의 필요에 대한 목마름 통역을 하면서 본인이 은혜받음 나는야 ‘라퐁젤’

4. 미라의 내러티브 ‘이야기하기’

미라는 학창 시절 해외의 여러 나라에 거주하면서 한인 교회에서 한국어 예배를 드리며 자란 기독교 모태 신앙인이다. 대학원을 제외한 정규 교육을 모두 해외에서 받아 A언어가 영어이며, 서울 소재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대한예수교장로교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대학원 재학 시절에 교회의 주보에 예배 통역사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일 오전 예배 전체에 대한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동시통역을 봉사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다.

4.1 부스에서 펼치는 모노 드라마

미라가 예배 통역팀에 합류한 당시, 교회는 신도들에게 주일예배 동시통역을 제공한지 10년 이상 된 시점이었다. 통역팀에는 미라 외에도 영어 통역사가 있었는데 예배 동시통역은 관례적으로 통역사 1인이 교대로 수행해오고 있어,

미라 역시 예배의 전 과정을 홀로 통역해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 통역팀 관리자들은 기도 샘플이 국영문으로 담긴 통역용 기본 참고자료를 문서로 제공하였고, 어휘에 대한 간략한 교육과 함께 실전 통역에 투입된 기 전의 짧은 통역 훈련 기간 동안에 피드백을 해주었다. 실제 예배 통역에 투입이 되면서 평소 국제회의 동시통역의 부스 환경과는 설계가 상이한, 방음 시설이 없는 넓은 방에 책상, 마이크, 헤드셋이 설치된 환경에서, 미라는 1시간 남짓한 예배 전 과정에 대한 1인 동시통역에 신속히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초반에 통역사들한테 참고하라고 나눠주신 포맷 서식이 있어요. 거기에 축도, 기도 샘플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참고했어요. 특히 축도 같은 거는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으니깐요.”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쓰지 말 단어를 뭘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짧게 지도를 받았어요. 통역 연습을 할 때 훈련을 담당하신 분이 통역팀의 통역을 지켜봤어요. 저한테는 말투, 목소리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목소리가 저음이고 갈라지는 경향이 있고, 약간 우울하게 들린다고요.”

교회가 제공한 표현 샘플 자료는 유용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예배 특유의 화법과 언어를 익히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미라는 스스로 정보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관련된 웹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분량이 적지 않은 담임목사님의 설교 원고는 예배 전날인 자정쯤 되어야 전달이 되어 준비 시간이 촉박할뿐더러, 평소 회의통역의 연사들과는 상이한 담임 목사님의 서정적인 화법은 미라에게 상당한 적응을 요하였다.

“예배 표현을 찾아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정보가 의외로 웹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마쳐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자료가요. 물론 영상을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거기 나오는 건 그 목사님만의 화법일 수 있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Let us rise for the Word of God’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보통은 영어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는 rise라는 동사보다는 stand나 stand up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누가 알려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통역사가 예배 특유의 표현들을 알아서 터득해야 돼요.”

“처음 목사님은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소파처럼 폭신한 하나님의 품’ 그런 식으로 많이 갖다 붙이세요. 딱딱한 내용은 바로 치환이 될텐데 감성적인 내용이라서 오그라들고 힘들고. 시적인 표현을 워낙 좋아하셔서, 원고도 시처럼 작성된 부분이 많았어요. 분량이 13장-14장 이랬어요. 담백한 영어로 그걸 전하는 게 어려웠어요.”

미라에게 심적 부담을 계속 지운 것은 설교 통역이었는데, 이는 비단 목사님 개인의 화법뿐 아니라 통역을 듣는 회중을 감화시켜야 한다는 설교 통역사로서의 역할 부담에 기인하였다. 또한 호소력 짙은 설득조의 설교는 대체로 차근차근한 속도로 진행되고 언어적인 반복 기법이 빈번히 구사되었는데, 이에 맞추어 통역 기술을 조율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목사님들은 설교 할 때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차근차근 얘기하다보니까, 문장이 늘어져서 동시통역 할 때 문장이 어디로 나아가는지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살고, 살고, 살고...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 이런 식의 화법이에요.”

“설교 통역하고 나면 매번 ‘오늘도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전달이 제대로 됐을까 싶어요. 특히 마무리 부분이 늘 아쉬워요. 뭔가 반복이 나오면 그게 강조를 위한 건데, 영어에서는 되게 중복으로 들리고 얘기를 하다 만 느낌이 들어요.”

“설교의 맥락은 전달이 됐는데 그 안에 설득과 호소력이 있어야 하고 챌린지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전달이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내 통역 듣고 절대 은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빼대는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이 통역을 듣고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찝찝해요.”

교회가 제공한 오리엔테이션 형식의 짧은 교육에 끝에 교회의 통역팀에 합류한 미라에게 예배 통역은 평소 익숙한 국제회의통역과는 다른 업무환경과 역할기대를 부여하였다. 회의통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1인이 수행하는 동시통역의

환경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미라에게 적응의 대상이 된 것은 설교 통역으로, 낯선 화법과 수사법으로 전개되는 설교를 정확하게 통역함과 동시에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앙과 영성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을 지며 미라는 예배 동시통역사로서의 첫 발을 떼었다.

4.2 멀티 주인공과 변수의 출현

설교 외에도 주일 예배의 식순에는 다양한 기도의 유형과 주체들이 등장하였다. 대표기도와 봉헌기도는 장로와 부목사들이 주마다 교대로 진행하여 미라는 번번이 바뀌는 기도자의 화법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했다. 특히 봉헌기도는 한국적인 정서를 짙게 담고 있어 언어적 전달이 어렵게 느껴졌고, 장기간 외국에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접한 바 없던 축복 기도는 그 내용과 형식이 미라에게 어색하였다. 또한 광고순서 등 통역을 듣는 외국인 회중에게 사실상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 등장할 때면 통역 시 유연한 대처 능력이 구사되어야 했다.

“‘아기를 첫 외출기도’라는 순서가 있거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가 아기를 안고 나오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거든요. 축복기도이지만 축도랑은 달라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밤낮으로 지켜 주시고, 좋은 은사를 보내주시고..’하는 식의 축복기도가 통역하기에 다른 기도보다 어색한 게 있어요.”

“봉헌기도도 어려워요. 평소에 안 하는 기도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표현들이, ‘우리가 없는 살림에도 이렇게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되게 그런 뉘앙스가 들어 있어서요. ‘우리가 내는 십일조’ 이렇게 담백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데 통역에서 살리기 어려워요.”

“광고할 때 어디까지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지 고민했어요. 이번 주에 구역예배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오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중간에는 제가 임의로 외국어 예배 안내 멘트를 그냥 해줬어요, 외국인 청중과 관련이 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을 때예요.”

설교의 주체 역시도 특정 시간 간격을 두고 바뀌었는데, 이는 담임 목사가

교체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빚어지는 현상이었다. 우선 담임목사의 사임 직후부터 담임목사가 새로 부임하기까지의 공백기에는 교회의 부목사들이 교대로 주일예배 설교를 하였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는 부목사들의 설교원고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에도 장로들의 대표기도문은 담임 목사의 공백기와는 무관하게 평소 원고 전달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부목사님들은 설교 원고를 줄지 안 줄지가 관건이었어요. 통역이 있다는 걸 모르시거나 해서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다음 목사님 오시기 까지 시간이 1년 이상 걸리기도 했어요.”

“장로님 기도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장로님들한테 전달 원고를 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사실 연세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공백기를 지나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을 하면서 설교문의 결은 크게 바뀌었다. 서정적인 화법과는 상반되는, 강연자 혹은 학자와도 같은 신임 목사는 화법은 미라에게 상대적으로 친숙하게 다가왔다. 한편 미라는 기독교 예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여러 표현들을 계속 익혀나가야 했는데, 직역이나 임의적인 해석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규격화된 말의 형식들이 거듭되었기 때문이다. 예배 중에는 각종 교회 행사와 관련된 영상도 종종 상영되어, 영상의 멘트와 자막에 대한 통역도 미라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다.

“두 번째 목사님은 그나마 편했던 게 설교를 강의처럼 하세요. 성경수업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일반 학자들 통역할 때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고저 없이 차분하고 우아하게, 학자처럼 말씀하셨어요.”

“수련회 홍보 영상에 음악 깔리고 성경 말씀 지나가고. 그런 거는 영상에서 누가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통역을 하기는 하는데, 바깥의 스피커 소리가 커서 통역이 잘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이미지만 있는 영상은 통역을 안 하고, 가끔 자막이 너무 길게 처리될 때는 통역을 하기도 해요. 영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면 필요가 없는데, 자막으로 스토리를 얘기하거나 할 때는 내용이 전달돼야 하나가요.”

“그니까 이게 절대 일대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어와 영어 예배

에서 각각 쓰이는 고정된 표현들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면 영어에서는 ‘in the name of Jesus’, ‘I pray in your Son’s most precious name’ 같은 고정된 영어 표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알고 있는 게 좋거든요.”

예배 동시통역은 미라에게 예배의 식순에 따른 여러 화자와 상황에 대한 적응을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설교와 기도의 주체가 계속하여 변모를 겪는 중에, 미라는 한편으로는 설교자와 기도자 별로 드러나는 개별적인 화법을 신속하게 숙지하여야 했다.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화자와는 무관하게 반복되는 예배만의 규격화된 언어의 규칙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기도에서 드러나는 한국적이고도 애절한 정서를 마주하며, 각각에 맞는 대응 표현들을 정립해나가는 노력을 거듭하였다.

4.3 적응과 확장

시간의 경과와 여러 좌충우돌 끝에 미라는 자신만의 구체적인 예배 통역의 전략들을 수립해갔다. 설교의 경우 세 번째 담임목사가 부임한 후로는 통역사에게 원고가 전달되는 시점이 더 들쭉날쭉해지고 설교가 원고의 내용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렇듯 예측불허의 설교 통역 상황 앞에서, 미라는 원고로 통역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되 실전에서는 원고를 눈으로 따라가는 대신 귀에 의존하는 동시통역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청중의 마음에 가닿는 통역을 위해 스스로의 통역을 녹음하는 등의 자기감시 끝에 말의 속도와 톤을 조절하고, 가능한 한 요약식의 통역을 의도적으로 택하였다.

“원고를 읽어오고 나서 예배 때는 대부분 귀에 의존해요, 해보니까 들으면서 따라가는 게 낫고 성경 말씀 인용하실 때만 미리 번역해 둔 구절을 눈으로 보면서 통역해요. 그리고 제 통역이 어떻게 들리는지 신경 쓰려고 되게 많이 녹음해서 들어봐요. 과연 내 말이 호소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고 나면 목소리 톤을 평소보다 낮추게 돼요. 들어보니까 그게 좀 더 신뢰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욕심이 많아서 목사님의 말을 다 잡으려고 하니까 톤도 높고

말도 너무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놓치는 게 있어도 차라리 일정한 톤과 속도로 전달하는 거에 신경을 썼어요. 이게 사실 정보전달이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와 닿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일반 통역 때보다는 더 의식적으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서 요약해서 말하게 돼요.”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는 요약이 쉬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역사를 설명하거나 하실 때는 요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팩트가 나오면 그때는 빠르게 전달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나오는 중요한 구구들은 제가 좀 천천히 통역하는 편이에요.”

한편 미라가 예배 통역팀에 합류한 시점부터 3인의 영어 통역사가 3교대로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교회가 성전 건축에 돌입하면서 미라의 역할과 업무 비중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 즈음 함께 일하던 통역 인력이 유출되어 미라는 성전 건축기간을 비롯한 몇 년 간 홀로 매주 예배 통역을 담당하였다. 또한 교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와 교회 새 성전의 완공 이후의 입당예배 등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주일예배 외의 행사들에 대한 통역 지원을 하여 업무의 강도가 심화되었다.

“교회의 심포지움이랑 학술강좌 때도 동시통역을 1인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는 좌담회 형식으로 은퇴한 목사님 한분이랑 외국인 연사분이 초빙됐는데, 통역하는 목사님은 따로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그 외국분께만 영어로 동시통역 해드리고, 통역하는 목사는 순차로 영한만 하셨어요.”

“입당 예배 때 각국 대사님들이랑 외부 손님들이 오셨거든요. 그때 다른 교회 목사님 여러분이 축사를 하셨는데, 축사가 되게 길었어요. 또 건설회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고마운 분들께 수여식도 했어요. 설교는 평소보다 짧았어요.”

이후 통역 인력이 충원과 이탈을 반복하는 중에 통역 자리를 꾸준히 지킨 미라는 교회 측의 요청으로 통역 팀장직을 맡게 된다. 새로운 통역 인력을 선발하고 교회 본부와 통역팀 간의 소통을 잇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팀장직은 미라의

업무 범위를 보다 확장시켰다.

“현재 기준으로 다시 3명이 통역팀에 있는데, 저랑 또 한분이랑 해서 2명이 메인 통역사로 한 달을 반으로 나누어 통역하고, 저희 둘이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을 때에 투입되는 예비 통역 인력이 한명 더 있어요.”

“팀장이 하는 일은 통역할 순번 정하고 팀 내의 의견을 예배부에 전달하고, 반대로 예배부의 메시지를 팀원들한테 전달하고요. 또 통역사 선발하는 업무도요. 그 외에 정해진 거는 없어요. 예전에 하신 분들은 통역사 음료를 통역실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웃음).”

담임 목사 여러 명을 거치고 다양한 설교 스타일과 상황 변수를 접하면서, 미라는 점차 설교 통역의 방법과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며 업무 적응의 단계로 진입하였다. 설교 중에 높은 커버리지와 요약을 요하는 구간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미라는 내용 상 커버리지가 중요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청중에게 전달력과 호소력이 높은 속도와 어조로 통역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또한 단신으로 예배 통역을 장기간 담당하고 교회의 여러 부대 행사의 통역과 통역 팀장직을 맡으며, 자신의 역할 범위를 넓혀갔다.

4.4 정체성 전환

예배에서 미라는 국제회의통역사로서 전문 동시통역 기술들을 적용하여 통역에 임하였지만, 교회는 통역팀 인력을 통역의 전문 집단보다는 봉사자로 인식하는 시선이 우세하였다. 이에 더해 미라와 업무를 교대하며 통역팀을 거쳐간 통역사들은 대다수가 전문 통역 교육을 받지 않은 비숙련 인력으로, 예배 통역을 자신의 영어 실력을 연마하는 방편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예배의 전 과정에 대한 동시통역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적은 상황에서, 미라는 이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사실상 통역을 도맡는 구도에서 일하곤 했다.

“지금까지 통역을 같이 한 인력을 보면 학원 선생, 회사원 등 영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하셨고요, 도중에 통역사도 있었고, 아니면 유학 갔다 온

친구들. 그런데 비전문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팀장이 돼서 지원서를 받다 보니까 확실히 영어를 연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요.”

“순번을 배정하는 역할을 제가 해요. 근데 주로 제가 그냥 해요. 왜냐면 예배통역 외에는 통역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요. 교회에 통역사 자체가 많지가 않고, 통역을 듣는 외국 청중도 지금까지 소수거든요. 그래서 통역을 아주 잘하지 않아도 크게 들고 일어날 일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유지된 것 같아요.”

교인을 대상으로 통역사 모집을 하는 상황에서 전문 동시통역사가 영입되는 경우가 드문 관계로, 교회는 중도에 몇 년간 설교 원고에 대한 번역 서비스를 통역팀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해당 인력이 교회를 떠나면서 번역은 중단되었다. 통역팀에 합류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미라는 국제회의통역 환경에서 당연시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업무 지원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스스로도 봉사자의 정체성과 사고를 입어야 했다.

“상호 간에 교육은 없어요. 하자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당시 팀장님이 한번쯤 동시통역 세미나처럼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역사들이 평소보다 많이 합류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호지부지가 되어 버린.”

“통역사가 아닌 분들과 일하면, 원고가 너무 늦게 오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돼서 잠 못 자고 기다릴 때가 많았어요. 영어예배 목사님이 2년 정도 설교문 번역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통역을 너무 못해서 장로님이 번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된 걸로 알아요. 근데 중간에 영어 예배 목사님들이 교체되면서 번역 서비스는 끝이 났죠.”

동시통역을 할 때는 몸이 늘 부스에 있는 관계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업무 환경에는 익숙했지만, 설교 동시통역사로서 미라는 설교자 및 청중과의 단절감과 거리감을 평소보다 크게 느꼈다. 설교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없고, 통역을 듣는 회중에 대한 교회 측의 정보 전달이나 통역에 대한 피드백

역시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통역 리시버를 받아가는 수로 청중의 수를 가능해 보기도 했지만 매주 그 주는 소수였고, 리시버 수령자가 전무한 날에도 예배 동시통역은 계속 되었다.

“답임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설교문 보내주시면 저는 그분 통해서 이메일로 받아요. 파워포인트 만드는 사람이라 통역사 등 여러 사람한테 중간에서 그분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세요.”

“외국인 교인을 영접하는 분이 계셨을 때는 외국인 왔는지 안 왔는지 통역실에 통보해주셨던 기간이 잠깐 있었어요. 어쨌든 늦게라도 누가 오면 통역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해요. 언제 생길지 모르는 수요 때문에 긴 시간을 통역을 한 그런 세월이 최소 2년이에요.”

“예전부터 느꼈는데, 통역을 듣는 분들이랑 접촉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성전 새로 지은 다음부터는 예배당이랑 통역실이 네층이나 차이가 나요. 그냥 저 혼자 라퐁젤처럼 어딘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 상황이 진짜 안 보이고 확인할 길도 없어요.”

이렇듯 쉽지 않은 업무 환경에서 설교 동시통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미라는 교회 봉사를 지속하고 싶은 마음과, 예배 통역을 통해 스스로 은혜를 받는 내적 보람을 꼽았다. 통역사로서 원고를 사전에 숙지하여 설교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다가오고, 완성도 높은 연설문 형식의 설교 텍스트를 매주 접하는 것에서 기쁨과 성장을 경험하였다.

“봉사를 어떤 식으로든 하고 싶고, 설교를 보다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또 말씀들이 좋아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랑 맞지 않는 목사님이 오셨더라면 아마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크죠. 저한테 은혜가 많이 돼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일반 통역을 할 때는 항상 정신이 없잖아요. 두 명이 들어가서 순서도 나누고 연사 받음도 알아듣기 어렵고 되게 빠르게 말하고, 통역하고 나면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설교는 그야말로 연설이잖아요. 평소에 할 기회가 없는, 잘 준비된 텍스트로 천천히 말하는 연

사의 통역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예배 통역사를 봉사자로 인식하는 교회 본부의 시선은 통역사의 선발과 관리 및 업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봉사보다는 영어 실력 향상의 동기로 지원하는 비숙련 통역사들을 선발하고 관리하면서, 미라는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역할을 자처하였다. 설교자 및 청중과의 소통 단절과 교회의 느슨한 통역팀 관리에서 비롯되는 목마름을 봉사가 주는 보람으로 상쇄하면서, 미라는 재능을 기부하며 헌신하는 신도로서의 정체성을 굳혀갔다.

5. 미라의 내러티브 ‘다시 이야기하기’ 및 결론

미국의 선교사가 1800년대에 설립하여 오랜 역사와 많은 성도수를 지닌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성도인 미라는 자신의 출석교회를 ‘보수적’이고 ‘학문적’인 곳으로 설명한다. 실제로 교회를 설립한 선교사의 이름을 딴 글로벌 학술 강좌와 심포지움을 교회는 매년 개최하는데, 예배 통역팀에 합류하기 전에 미라는 이들 학술강좌에서 간헐적으로 의전과 순차통역을 지원하면서 통역 봉사의 경험을 처음 하게 된다. 이후 정식으로 예배 통역을 맡게 되면서 그는 ‘입례 찬송, 예배에의 부름, 화답송, 성서교독, 신앙고백, 송영, 기도, 찬송, 성도의 교제, 성경봉독, 찬양, 설교, 기도, 찬송, 봉헌, 송영, 봉헌기도, 찬송, 축도’의 순으로 진행되는 예배에서 음악을 제외한 모든 순서에 대해 동시통역을 수행한다.

직업적응(vocational adjustment)은 업무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역동적 과정으로 정의되는데(Dawis and Lofquist 1984), 예배 통역팀 합류 당시 국제회의통역사로서 동시통역 업무 경험이 적지 않던 미라는 그럼에도 예배 통역에 대한 직업 적응의 과정을 새로이 거치게 된다. 다른 무엇보다 미라는 국제회의통역사와 예배 통역사의 정체성을 분리해야 하는 상황들에 놓이게 된다. 교회와 예배라는 업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그에게 하나의 정체성 변환의 과정이 된 이유는, 예배 통역의 업무 내용, 역할 기대, 직업적 자아 정체성의 요인들이 맞물려 국제회의통역과는 상이한 그림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우선 업무적으로 미라에게 가장 큰 부담이자 적응의 대상으로 작용한 것은 설교 통역이다. 라이스(Reiss 2000)의 텍스트 유형분류에 따르면 설교는 정보적(informative) 텍스트와 작용적(operative) 텍스트의 교집합에 위치한다. 정보적 텍스트의 해석에서는 원천 텍스트의 개념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작용적 텍스트에서는 텍스트가 의도한 반응을 도출하는 것이 중시된다(Reiss 1989: 106). 설교문 전달의 시점과 수령 여부에 변수가 간혹 발생한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미라는 사전에 전달 받은 설교원고를 토대로 설교 통역을 수행하였다. 남녀노소로 구성된 교회 회중의 특성으로 인해 설교문 텍스트의 절대적인 난도가 지나치게 높지는 않다고 미라는 설명한다.

그런데 몇 년 주기로 담임목사가 교체됨에 따라 달라지는 설교문의 내용과 형식 등 정보적 측면에 적응을 해야 했고, 이와 더불어 그가 작용적 텍스트로서의 설교문의 기능에 항시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미라는 설교를 통해 신앙적인 성숙과 삶의 변화를 원하는 회중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확한 정보와 의미 전달을 넘어선 ‘영적 감화’는 그에게 강한 역할 인식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그가 통역한 설교들은 국제회의에서 흔히 접하는 프레젠테이션보다는 공식 연설의 특성이 강하고, 전달되는 말의 속도가 느린 관계로 내용 예측에 토대한 동시통역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미라는 국제회의 동시통역과는 다른 통역 전략을 수용하고 적용하게 된다. 즉, 내용의 압축과 요약적 적극 구사하고 텍스트에 대한 적극적인 재구성과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선포된 말씀을 ‘소화’하도록 청자 친화적인 속도와 전달력을 확보하는 것이 영적 감화를 돕는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예배 통역사라는 별도의 정체성을 강하게 부여한 요인으로 통역사를 전문가보다는 봉사자로 바라보는 교회의 인식을 들 수 있다. 교회 통역이 대개 무보수 봉사로 행해지고 전문 통역사와 비전문 통역 인력과의 협업이 전제되지는 선행연구의 보고(Tekgül 2020; 신혜인 2015)는 미라가 처한 예배 통역의 상황과 일치한다. 미라의 출석 교회는 지금까지 한국인 신도수 대비 외국인 예배 참석자가 극소수인 상황이며, 외국인 참석자는 대개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가정 직원들과 외부 방문자들이다. 보통의 주일 예배에서 자신의 동시통역을 듣는 평균 인원을 미라는 3명 정도로 추정하였다.

이렇듯 동시통역을 듣는 외국인 회중의 수가 미미한 관계로, 교회 내에서는

통역의 중요성이 희석되고 그만큼 통역 인력의 전문화 역시 더디 실현되는 모습을 보인다. 봉사자라는 인식은 동시 통역팀에 합류하는 데 있어서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이어지고, 통역 인력에 대한 교회 본부의 엄격한 관리나 상시적인 모니터링의 부재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라는 통역사로서의 존재감이 축소되는 동시에 통역에 대한 피드백과 칭증을 필요를 알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통역 사용자인 청중은 통역의 유형에 따라 통역사에게 갖는 기대가 상이한데,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교 통역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한 신혜인(2013)은 순차 통역사에게는 신앙, 소명의식, 인격이 통역 능력 못지않게 강조되는 반면, 동시 통역사에게는 주제지식, 통역기술, 사전교육 등이 강조되었음을 보고한다. 그러나 미라가 속한 교회의 경우 초창기에 사전교육을 간략히 제공하였지만, 이는 동시통역 기술의 직접적인 증진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이나 전문통역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통역사를 선발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교회 본부와 통역을 듣는 회중 모두가 통역 유형에 따라 인식을 달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통역사의 '가시성'의 여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하나님의 심정이 기독교 예배의 중심에 있음을 감안할 때, 통역사의 가시성과 통역을 듣는 회중의 인원수에 따라 통역사의 역량과 통역 품질의 중요도에 이렇듯 상당한 차등을 두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전문 통역 인력과 협업하며 팀장직과 동시통역의 책임을 맡은 경우 홀로 지면서도, 미라는 봉사하는 신도 통역사로서의 직업 정체성을 수용하였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문통역의 재능이 회중을 위해 마땅히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통역이 고되지만 스스로가 '은혜를 받는' 통역사가 된다는 그의 인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외국인 회중, 통역사, 통역 서비스 언어의 수가 증대될 것 희망한다는 미라는, 미래에 통역팀 관리뿐만 아니라 외국인 회중을 접견하고 이들과 교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픈 소망을 피력하였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300만 명을 향해 가는 오늘의 상황에서, 교회 예배에 대한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동시통역

서비스의 수요는 향후 증가할 소지가 높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 예배 동시통역 서비스 대상이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인 경우가 빈번했다면, 현재는 다문화 가정의 일원을 비롯하여 가정이나 직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폭넓은 프로파일의 청중들이 예배에 참석을 한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에서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예배 동시통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황 분석이 이루어진 것 외에는, 예배 동시통역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현존하는 연구는 설교 통역에 대한 순차통역의 사례 보고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예배 동시통역사의 경험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본고의 미비점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겠다.

참고문헌

- 김일석 (2013) 「영어 성경 및 설교 통역·번역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방법: 문화를 기초로 한 언어학습과 교육」, 『한영연구논문』 5: 283-304.
- 김병석 (2020) 설교자와 회중 사이의 인격적 설교 연구, 『신학과 실천』 68: 119-146.
- 김병석 (2020) 치유설교 구조의 수사학적 양식에 관한 연구, 『설교한국』 11: 81-112.
- 김홍진 (2009) '설교자의 설교에 대한 의도'와 '성도의 설교에 대한 니즈'의 비교 분석, 『대학과 복음』 14: 179-208.
- 류응렬 (2010) 설교자와 영성, 『설교한국』 2: 124-147.
- 신혜인 (2013) 『한국교회 내 설교통역에 대한 조사연구: 설교통역의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인 (2015) 「한국교회 설교통역의 특징에 대한 연구」, 『번역학연구』 16(2): 87-103.
- 신혜인 (2017) 전문통역사와 일반통역사의 협력: 설교통역분야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9(2): 79-100.
- 신혜인 (2019) 「설교통역의 충실성에 관한 고찰 - 1973년 빌리 그래함 한국전도대회 통역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0(3): 67-89.

- 장경진 (2013) 교육목회에 있어서 설교자의 역할: 청중이해와 설교적용, 『기독교교육정보』 39: 213-239.
- 조셉 I. 치세티, 문창우(번역자) (2013) 설교자와 설교에 관하여, 『신학전망』 183: 219-236.
- Andrews, Molly, Corinne Squire and Maria Tambokou (eds) (2008) *Doing Narrative Research*, London: Sage.
- Balci, Alev (2016) 'The Interpreter's Involvement in a Translated Institution: A Case Study of Sermon Interpret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at Rovirai Virgili.
- Bruner, Jerome (1991) 'The Narrative Construction of Reality', *Critical Inquiry* 18(1): 1-21.
- Clandinin, Jean D. and F. Michael Connelly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 Connelly, Michael F. and Jean D. Cladinin (2006) 'Narrative inquiry', in Judith L. Green, Gregory Camilli and Patricia B. Elmore (eds) *Handbook of Complementary Methods in Education Research*, third edi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477-487.
- Dawis, Rene V. and Lloyd H. Lofquist (1984) *A Psychological Theory of Work Adjustment: An Individual-differences Model and Its Applicatio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ownie, Jonathan (2014) 'Towards a Homiletic of Sermon Interpreting', *Journal of the Evangelical Homiletics Society* 14(2): 62-69.
- Etherington, Kim (2004) *Becoming a Reflexive Researcher: Using Our Selves in Research*, London: Jessica Kingsley.
- Hokkanen, Sari (2012) 'Simultaneous Church Interpreting as Service', *The Translator* 18(2): 291-309.
- Hokkanen, Sari (2017) 'Simultaneous Interpreting and Religious Experience: Volunteer Interpreting in a Finnish Pentecostal Church', in Rachele Antonini, Letizia Cirillo, Linda Rossato and Ira Torresi (eds) *Non-professional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ate of the Art and Future of an Emerging Field of Research*,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95-212.
- Karlik, Jill (2010) 'Interpreter-mediated Scriptures: Expectation and Performance', *Interpreting* 12(2): 160-185.
- Musyoka, Eunice N. and Peter N. Karanja (2014) 'Problems of Interpreting as a Means of Communication: A Study on Interpretation of Kamba to English Pentecostal Church Sermon in Machakos Town, Keny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4(5): 196-207.
- Odhiambo, Kenneth, Eunice Nthenya Musyoka and Peter M. Matu (2013) 'The Impact of Consecutive Interpreting on Church Sermons: A Study of English to Kamba interpretation in Machakos Town, Kenya',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in Business and Social Sciences* 3(8): 189-204.
- Onega, Susana and Jose Angel Garcia Landa (eds) (1996) *Narratology: An Introduction*, London/New York: Longman.
- Reiss, Katharina (2000) *Translation Criticism - The Potentials & Limitations: Categories and Criteria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Erroll F. Rhodes, Trans.)*, Manchester: St. Jerome.
- Reiss, Katharina (1989) 'Text Types, Translation Types and Translation Assessment', in Andrew Chesterman (ed.) *Readings in Translation Theory*, Helsinki, Oy Finn Lectura, 105-115.
- Reissman, Catherine K. (2008). *Narrative Methods for the Human Sciences*, Thousand Oaks, CA: Sage.
- Tekgül, Duygu (2020) 'Faith-related Interpreting as Emotional Labor: A Case Study at a Protestant Armenian Church in Istanbul', *Perspectives* 28(1): 43-57.
- Vigouroux, Cécile B. (2010) 'Double-mouthed Discourse: Interpreting, Framing and Participant Roles', *Journal of Sociolinguistics* 14(3): 341-369.

[Abstract]

A Narrative Inquiry of a Sermon Interpreter's Work Adaptation and Professional Identity

Hong, Sulyoung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ors & Interpreters)

While sermon interpreting in multicultural preaching settings has long constituted church practice, there is a dearth of academic research on the work experience and professional identity of sermon interpreters. This research aims to fill the void by conducting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experience of a sermon interpreter at a Presbyterian megachurch in Korea. Applying the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 of temporality, sociality and space, a series of unstructured interviews led to a collection of narrative data that was analyzed inductively for recurring themes with regards to the research participant's work adaptation and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Findings highlight four main themes concerning the participant's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work environment & context, work adaptation, interpreting strategy, and role & identity.

▶ Key Words: sermon interpreting, church interpreting, simultaneous interpreting, qualitative research, narrative inquiry

▶ 주제어: 설교 통역, 교회 통역, 동시 통역, 질적 연구, 내러티브 탐구

홍설영

한국통번역사협회 회원

harahong@daum.net

관심분야: 통번역 교육, 직업 정체성, 질적 연구

논문투고일: 2021년 8월 6일

심사완료일: 2021년 9월 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